

한예인

2010 여름호 Haein Membership Magazine Vol. 267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 내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열기가
한여름 땀벌처럼 뜨겁습니다. 이 넘치는 열정이 바로
보다 나은 내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캐터필라 불도저 D7F, 그 오랜 생명력의 비결



예천 지보면 구담리 구담보 현장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 노장의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변함없이 현장을 누비며 사랑받는 1972년식 D7F가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개인 사업자까지 여러 주인을 거치면서도
무려 39년 동안이나 작업력을 유지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헤인을 통해 장비 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지원받으며
지금도 젊은 장비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D7F!
명품 장비에는 명품 서비스가 있듯
튼튼한 캐터필라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헤인이 있습니다.

◎ 보유 고객 : 박기덕 (개인고객) 업종 : 장비대여업 장비 보유 현황 : 캐터필라 불도저 D7G, D7F



커버스토리 |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람, 언뜻 상반된
느낌의 이 두 자연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자연입
니다. 여름호에서는 직렬하는 태양과 그 아래서 더욱 간절
한 바람을 활용한 태양전지모듈과 프로펠러를 통해 여름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붓 터치에 쉬
지치는 무더운 여름을 보다 활기차게 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아 보았습니다.

Contents

헤인사 2010_Summer Vol.267

2010 . Summer

02	the great_ 캐터필라 불도저 D7F, 그 오랜 생명력의 비결
04	time machine_ 최우량 상장 기업 선정의 숨은 비밀
06	partnership_ 낙동강에 캐터필라 삼총사가 떴다!
10	power interview_ 20여 년간 한우물, 엔진서비스팀 김기진 팀장
12	major product_ 캐터필라 Low energy fuel, AP655D 아스팔트 피니셔
14	team power_ 장비의 응급의료센터, 서비스콜센터
16	passion & enjoy_ 희망의 덩크슛을 쏘는 농구 동호회 '에어볼'
20	special theme_ 이 시대 진정한 프로의 5가지 조건
24	business coaching_ 성공을 부르는 첫인상 업그레이드 비책
26	eco life_ 손쉽게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가이드
28	happy trip_ 그 섬에 가고 싶다, 인천 섬 여행
32	be healthy_ 몸에 좋은 한방차로 차(茶)가운 여름 만들기
34	news_ 파워시스템사업본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참여 외
37	Q&A
38	letters
39	haein campaign

헤인사 2010_Summer Vol.267

(주)헤인 사보 통권 267호/발행일 2010년 7월 13일/등록 일자 1993년 10월 20일/등록번호 바-2006호/발행처 (주)헤인 02·3498·4500(www.haein.com)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발행인 겸 편집인 원경희/기획 (주)헤인 사보편집실 02·3498·4634/제작 디자인인화 02·324·6852 기획 편집, 유은혜, 최수진, 김민선 디자인, 여승민, 홍현정 표지 그림, 모혜준/사진, 마루스튜디오/인쇄 삼화인쇄
· 본지에 게재된 글은 발행처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주)헤인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영업 방식 혁신에서 주식 상장까지

최우량 상장 기업 선정의 숨은 비밀

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해인의 현재 모습 뒤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수입자유화 방침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와 기업공개 역시 이에 해당한다.

최우량 상장기업에 선정되기까지 진행된 해인의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특히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무엇보다 국가의 수입 정책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1988년 농수광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자유화가 이뤄졌을 당시 해인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기업 공개 1년 만에 각종 기관과 언론사의 경영대상을 수상하고 국내 최고 우량기업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했던 것이다.

빠르고 과감한 . 판단력으로 . 앞서 나간다 .

1988년 시행된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은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좋은 기회였다. 수입자유화로 관세가 대폭 줄어들어 각종 건설기계와 부품을 보다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의 국산화 정책으로 인해 건설기계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인 역시 이를 계기로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만했다.

하지만 아무리 경영에 유리한 정책이 시행된다 해도 정책 자체에만 의존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해인은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

시행과 함께 영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영업은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야 발주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고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 급한 고객들은 중간에 생각을 바꿔 다른 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던 것.

이에 해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장비를 사전에 구비하는 영업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즉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미리 장비를 도입해 창고에 적재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수입자유화 시행으로 관세가 줄어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주문에서 제품 인도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수요가 예상되는 장비를 한꺼번에 여러 대 구입해야 하고, 이렇게 도입한 장비를 보관해 둘 공간도 필요했기에 엄청난 자금을 확보해야 했던 것. 또한 들어온 양에 비해 판매량이 적을 경우 재고 유지로 발생하는 손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해인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1988년 자본금을 28억 원으로 증자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공개는 곧 주식 시장으로 이어졌다. 해인은 설립 당시부터 기업 경영을 통한 경제 발전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과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주식 상장을 결정했다. 1988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청약 기간 동안 발행주식 전량이 배정되었고, 9월 21일 비로소 해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탄탄한 . 실력을 바탕으로 . 최우량 기업 등극 .

그 결과 매출 실적은 1980년대 이후 빠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 시기엔 무리한 사업 확장을 자제함으로써 재무구조도 탄탄해져 영업의 손익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여러 기관과 언론사가 선정하는 각종 경영대상 수상의 영광도 안았다. 첫 수상은 기업공개 1년 만인 1989년에 이뤄졌다. 중앙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기업경영평가에서 기업평점 1위에 오른 것. 이를 필두로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던 해인은 1991년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 국내 562개 상장회사 중 최고 우량 기업에 선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다양한 수상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해인은 자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영혁신과 고객 서비스, 그리고 내실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처럼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더 큰 발전을 꿈꾸는 해인의 경영 마인드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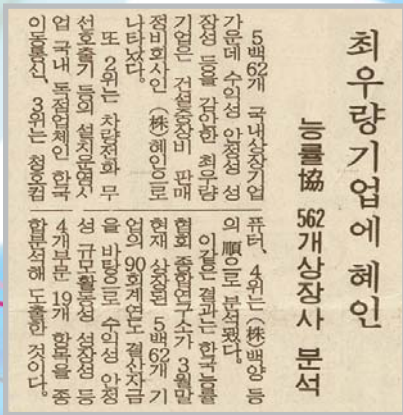
▶ 〈한국경제신문〉 199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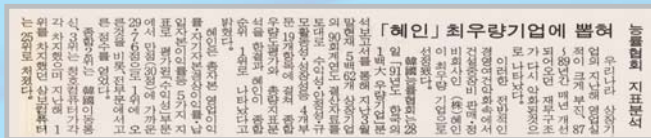
▶ 기업공개 광고



▶ 〈서울경제신문〉 1991. 6.



▶ 〈매일경제신문〉 1991. 6.



▶ 〈경향신문〉 1991. 6.



▶ 〈서울신문〉 1991. 6.



▶ 〈한국중기신문〉 1991. 6.

‘4대강 살리기’ 현장 리포트

낙동강에 캐터필라 삼총사가 떴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그 중 낙동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중추가 되는 지역으로,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중 60%가 이곳에 투입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지금, 이곳에서 중형무진 활약하는 캐터필라 329D 굴삭기 삼총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북 안동으로 달려갔다.

낙동강은 상류 지역에선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어 왔고, 하류로 내려가면 홍수 피해가 속출해 정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의 핵심 과제인 유량 조절, 가뭄과 홍수 방지, 환경 보전이라는 개발 목적이 가장 충실히 실현되리라 기대되는 곳이다.

40개의 공사 구역으로 나뉜 낙동강 현장 중 캐터필라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37공구 현장에는 캐터필라 329D 굴삭기가 중형무진하며 작업 속도를 올리고 있었다. 329D를 사용하는 주인공은 안동대형굴삭기협회 회장, 부회장, 총무.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안동대형굴삭기협회 임원들이 사용하는 캐터필라 329D이기에 그 특별함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낙동강, 살아나는 안동을 위해

멋들어진 꽃길을 따라 달리다 보니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표어가 안동에 도착한 취재진을 반겼다. 전통의 도시라고만 알고 있던 고요한 안동은 이제 낙동강 공사의 요충지가 되어 활기를 띠고 있었다. 가까이 보이던 공사 현장은 사실은 멀리멀리 흠길을 돌아가야만 도착할 수 있었고, 강에서 퍼 올린 흙이 곧게 쌓여 있는 현장에는 바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다. 다른 장비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캐터필라 329D 삼총사.

한 현장에 동일 기종이 세 대나 포진한 것도 흥미로운데, 그 삼총사의 주인이 모두 안동대형굴삭기협회 임원이라는 점 또한 특이했다.

“2008년 9월 출범한 안동대형굴삭기협회는 안동시 대형 굴삭기 소유자의 80%가 회원으로 있을 정도로 업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안동뿐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 지방의 상호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대형굴삭기협회 협회장 김필호 사장과 부회장 신성만 사장, 총무 정갑진 사장은 37공구 작업 현장에서 준설과 성토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강 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 바닥을 깊게 하는 일로 홍수위를 낮추는 작업이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전체 공정 중 약 15% 정도가 진행된 상태다. 준설한 퇴적토는 지역





1 안동의 개발과 해인의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는 (왼쪽부터) 해인의 박광호 대리, 조인호 차장, 안동대형굴삭기협회의 김필호 협회장, 신성만 부회장, 정갑진 총무. 2 낙동강 준설 작업 현장에서 커다란 버킷을 바빠 움직이며 남다른 작업력을 과시하고 있는 329D. 3 모래바람 부는 작업 현장에서도 해인의 박광호 대리와 김필호 협회장의 웃음은 끊이지 않는다. 4 ‘4대강 살리기’ 작업 현장에서 캐터필라 329D가 위용을 뽐내고 있다. 한 현장에 3대나 있다 보니 작업도 더욱 빨라져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의 건설 자재나 전담 랜딩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필호 협회장은 안동이 과거 중앙고속도로 건설 당시 건설 경기가 제일 좋았다고 회상하며, 4대강 사업과 도청 이전 사업 덕에 앞으로의 10년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장비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과 완성도가 결정되는 만큼 장비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캐터필라의 경쟁력

안동에 해인의 캐터필라 장비가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 잠시 지나가는 정도였던 캐터필라를 안동 현장에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김필호 협회장이다. 김필호 협회장을 필두로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캐터필라를 구입하기 시작했으니 이곳에 캐터필라가 보급된 데에는 그의 공이 크다 하겠다.

안동 토박이인 김필호 협회장은 어떻게 해인과 만나게 되었을까. 굴삭기와 함께한 20여 년의 경력자답게 해인이 안양에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그가 처음 캐터필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남보다 경쟁우위에 서야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준 해인 직원들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만 부회장의 경우 타 브랜드의 자문위원까지 맡은 상황이라 그가 캐터필라를 선택한 이유가 특히 주목을 끌었다.

“협회장이 쓰는 캐터필라 장비를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제가 쓰던 기존 장비와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내 장비가 못하는 걸 캐터필라는 해내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협회장이 좋다고 추천을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저 스스로 캐터필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한 캐터필라 329D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329D를 써 본 소감을 물으니 세 사람 모두 준비라도 한 듯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329D는 도심형 장비로 토목 공사에 적합합니다. 초대형까지는 아니지만 대형 장비 쪽에 속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장비의 작업 범위와 아래 단계 작업을 다 진행할 수 있어 실제 작업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말



하자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죠. 버킷의 크기가 비슷한 타사 장비에 비해 들어 올리는 힘이 좋아 작업의 효율과 생산성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작동방식이라 필터,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쉽게 살필 수 있고, 점검할 때가 되면 알람 기능도 작동하니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줍니다. 다른 장비에 비해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와요. 덕분에 뜨거운 여름에 작업해도 끔찍없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안동 시장에 캐터필라가 안 들어왔을 때는 국산 장비들만 가지고 작업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시대잖아요. 이 장비는 하는데 저 장비는 못한다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잘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장비 선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캐터필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캐터필라 얘기만 나오면 칭찬이 이어지는 김필호 협회장을 두고 주변에서는 캐터필라 홍보대사라고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소신을 밝혔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면 서도 곧 해인 담당자의 성실한 태도를 칭찬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면 그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알려주고 성의를 보이는 모습에 믿음이 갔고, 무엇보다 제품이 만족스러웠기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었다고.

안동대형굴삭기협회의 세 임원들은 중장비 분야의 현장 전문가이자 해인 고객으로서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캐터필라는 수입 기계라 어디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다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오해라고 봅니다. 판촉물이 부족해 정보를 얻기 힘들니 막연히 짐작만 하는 거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규정만 앞세우기보다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의 사정도 잘 살피는 따뜻한 해인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이들의 애정 어린 충고가 밑거름이 되어 캐터필라 장비와 해인의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일대도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나 제2의 부흥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여 년간 한우물, 엔진서비스팀 김기진 팀장

숨어 있는 문제도 ‘척척’ 엔진 문제풀이의 달인

흔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 힘들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알 수가 없다는 것. 엔진 및 발전기의 결함을 찾아내 고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겉모습만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에 그 어느 일보다 고되다. 20여 년간 ‘엔진’이라는 한우물을 파온 엔진서비스팀 김기진 팀장을 만나 엔진을 읽는 노하우를 들어 봤다.



2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것만이 인생 역전이 아니다. 본인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역시 인생역전이라 한다면 엔진서비스팀 김기진 팀장은 인생 역전에 성공한 케이스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김기진 팀장의 엔진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1 언제나 함께하는 엔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기진 팀장. 2 20여 년 쌓은 노하우를 팀원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김기진 팀장의 또 다른 기쁨이다.

알지 못하면.. 설득할 수 없다..

김기진 팀장의 직함은 세 가지다. 엔진을 다루는 실력을 인정받아 한 가지 업무에 매일 수 없는 몸이다. 그는 현재 엔진서비스팀장이자 서비스 어드바이저 겸 콜센터 업무까지 1인 3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가 속한 엔진서비스팀에서는 육상엔진과 해상엔진, 그리고 가스엔진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한다. 엔진 및 발전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과정부터 설치 과정에서 구조 변경, 배선 작업, 프로그램 수정·변경 후 시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팀의 주요 업무다. 최근에는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임회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듯 공급되는 엔진 및 발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일의 중심에 김기진 팀장이 있다. 이런 그가 20여 년간 엔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지켜 온 신념은 ‘내가 하지 않으면 동료가 대신 해야 한다’는 것. 하는 일에 끝까지 책임과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그 제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고객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늘 출장 전에 엔진 및 발전기에 관한 사전 정보와 자료를 취합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감으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 매뉴얼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매뉴얼은 출장길에 언제나 함께하는 단짝이었으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기꺼이 모범답안이 되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엔진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애정까지 담뿍 생겼단다. 분신처럼 늘 끼고 사니 정이 드는 건 당연한 일. 무언가에 ‘미치지(狂) 않고서는 미칠(及) 수 없다’는 말을 20년 세월 동안 실천한 셈이다.

‘쌘닭’ 속에 숨은.. 따뜻한 진심..

엔진을 소홀히 다루는 고객에게는 쓴 소리도 거침없이 해서 불은 그의 별명은 ‘쌘닭’. 하지만 그의 태도에 화를 냈던 고객들도 그 속에 숨은 진심을 알아챈 뒤에는 오히려 그를 신뢰하게 된다.

“엔진은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별 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엔진 관리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하듯 엔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수명도 길어지고, 그만큼 고객의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엔진에 탈이 나면 시간과 돈 모두 손해잖아요. 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 강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고객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안타까움과 고객을 생각하는 속 깊은 마음이 깔려 있었다.

김기진 팀장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철저한 검증이다. 제품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보다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고, 결과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10여 년 전 인천지점에 근무할 당시 일화는 지금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영업 사원과 그는 타사에 비해 고가인 캐터필라 해상용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운용하는 어선에 승선해 작업 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서자 망설임 없이 인천지역에서 새벽에 출항하는 어선에 승선하여 작업 현장까지 동행하며 적용할 엔진의 출력을 검증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 해상용 전자엔진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고객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었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새벽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고객이 신뢰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여 년간 한 우물을 팠으니 충분히 베테랑 소리를 들을 만도 한데 그는 아직도 전문가가 아니라며 스스로 몸을 낮춘다. 그저 오랜 세월 내일을 보며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갈 뿐이라고. 김기진 팀장의 다짐처럼 그가 올라선 트랙의 결승점은 아직 멀었고, 그의 힘찬 달리는 계속될 것이다. 🏃

녹색성장을 이끄는 가스엔진 발전기 세트

캐터필라 Low energy fuel 출시

전 세계적으로 녹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인에서는 캐터필라 Digester(Bio) & Landfill 전용 가스엔진을 공급하며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소화가스(Digester gas)가 발생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립가스(Landfill gas)가 발생한다. 이때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엔진의 냉각 계통 및 배기가스 계통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소화조 가온 또는 냉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가스엔진 발전기다.

소화가스 혹은 매립가스에는 많은 양의 수분과 황화합물, 할로젠화합물, 산, 그리고 규소화합물 등의 부식성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은 가스엔진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가스엔진의 빈번한 고장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식성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가스를 공급하는 전처리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여기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문제를 보완한 것이 해인에서 공급하는 캐터필라의 G3500 계열의 Low energy fuel 가스엔진 발전기 세트로, 전처리 설비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의 특징은 첫째, 고온수 냉각 시스템(냉각수 온도 110℃ 이상 유지)을 적용해 엔진을 부식시키는 응축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내구성을 높여 준다는 점이다. 둘째, 내부식성 공기 냉각기 및 천연가스엔진보다 큰 연료 공급 계통을 적용해 메탄 농도가 낮은 연료에서도 100% 엔진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G3520C 모델은 메탄 농도 30%에서도 100% 출력을 낼 수 있다. 또한 가스엔진 및 발전의 회전속도를 1200rpm으로 제작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매립이 완료되어 가스를 생산하는 기간이 15~20년인데, G3500 계열의 가스엔진은 한 번의 설치로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발전 출력은 350ekw에서 1,600ekw까지 공급 가능하다.

G3500계열의 Landfill & Digester gas 엔진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이미 가스엔진 발전기의 내구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제품이다.



탄천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열병합설비 (G3520C x 2대)



G3520C 가스엔진 발전기세트(LFG & Bio 가스 전용)

● Maximum Level of Contaminants for G3500 Low Energy Fuel 가스엔진

DESCRIPTION	UNIT	Digester & Landfill
Sulfur Compounds as H2S	mg H2S/MJ	57
Halide Compounds as Cl	mg Cl/MJ	19
Ammonia	mg NH3/MJ	2.81
Oil Content	mg /MJ	1.19
Silicon in Fuel	mg Si/MJ	0.56

도로포장의 새로운 혁명

캐터필라 AP655D 아스팔트 피니셔

캐터필라 아스팔트 피니셔 신모델 AP655D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 본격 출시되었다. AP655D는 트랙 형태에 따라 Mobil 트랙과 Steel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Mobil 트랙 방식을 취하고 있다.



Mobil T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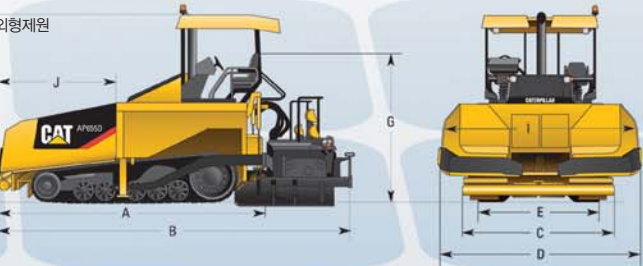
Mobil Track은 특유의 견인력과 휠 타입 피니셔의 기동성, 승차감과 완벽한 조화를 이뤄 개발됐다. 견고한 외부 커버와 신축성 있는 고강도 고무트랙 벨트로 내구성을 최대한 높였다. 최대 장점인 짧은 회전 반경과 최대이동속도는 각각 0.3m와 14.8km/h 로 좁은 작업환경에서 단 시간 내에 최대의 생산성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캐터필라 특유의 Bogied Undercarriage는 도로 포장 시 옆으로 새어 나오는 아스콘 찌꺼기를 스크리드에 앞서 분산, 완화시켜 준다. Automatic belt tensioning system은 자동으로 트랙의 팽창 정도를 조절해 주기도 한다.

스크리드

다양한 진동이 가능한 템퍼와 바이브레이터를 겸비한 스크리드가 업그레이드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안정된 스크리드로 최상의 포장면을 보장하고 사전에 설정에 따라 장비 가동 시 자동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가열 방식의 스크리드는 가동 준비시간이 짧고 각각의 부분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장비 운영이 편리하다.

엔진

AP655D의 엔진은 ACERT 기술(배기가스 감소 효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현재 국내 배기가스 기준인 TierⅢ를 완벽히 통과하는 친환경적인 고성능 엔진이다. 또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엔진 구성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고 연료 소모율 대비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준다. 🚧



작업 편의 기능

- 두 개의 운전석은 최적의 시야성(호퍼 안의 물질, 트랙의 접지면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어 다양한 위치로 변환이 가능하다.
- 운전석의 슬라이딩 컨트롤 제어판은 LCD 화면을 포함해 장비 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통풍 시스템 : 다양한 속도가 가능한 팬은 엔진 쪽의 공기를 효율적으로 흡입하고 호퍼 위 앞 방향으로 뿜어내어 뒤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장비의 응급의료센터, 서비스콜센터

One Stop Solution으로 무엇이든 OK!

(주)헤인에서 공급하는 제품에 관한 한 전국 어디서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전화 한 통이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는 서비스콜센터가 그곳. 상담부터 출장수리까지 고객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OK!'를 외치는 그곳에서 서비스의 정석을 확인했다.

1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고객의 전화에 응대하는 서비스 콜센터 팀원들. 2 전국에 배치된 서비스 요원의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며 고객의 수리요청에 즉시 배정하고 있다. 3 서비스콜센터의 수장 박유범 부장은 무엇보다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차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면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기껏 비싼 돈을 주고 산 제품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기 힘들다면 그만큼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콜센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서비스가 쉬워야 고객이 제품을 찾는다'는 마인드로 고객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다.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지는.. 편리한 서비스..

서비스콜센터 업무는 한마디로 (주)헤인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이다. 부품 가격 문의부터 장비 운용 방법은 물론 수리까지 제품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두 처리한다. 지난해 2월, 서비스콜센터가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는 고객이 각 지역 고객센터에 고장 접수를 하고 출장 서비스 요원을 직접 선택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요원별 균등한 업무 배분도 안 될뿐더러 고객은 고객대로 서비스 요원의 스케줄에 따라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다. 지금은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사라졌다. 가령 출장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해당 지역 작업자를 직접 배정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또한 헤인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의 서비스 요원까지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적합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 요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서비스 요원이 곧 헤인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곧 헤인의 실력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유범 부장은 서비스 요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헤인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요원의 실력 향상은 곧 헤인에 대한 고객의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헤인을 다시

찾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간혹 국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2시간 내에 문제에 대한 회신을 받아 글로벌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헤인은 '건설기계 및 엔진/발전기의 종합병원'으로 통한다. 일반 업체에서 고치기 어려운 고장까지 고쳐내며 그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장비를 알아야.. 서비스도.. 좋아진다..

헤인에는 유독 장기근속자가 많다.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들이 많다는 이야기. 서비스콜센터는 그 중에서도 근속 연수에 유난히 엄격해 웬만한 경력으로는 입성할 수 없는 곳이다.

“장비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콜센터에 장기근속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서비스콜센터 최고 장기근속자 박유범 부장의 설명이다. 근무 연수는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빛을 발한다. 콜센터는 문제가 발생해야만 전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간혹 다짜고짜 험한 말부터 하는 고객도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시작이다. 이는 웬만한 내공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잘못된 것도 없이 험한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리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그들은 언제나 웃는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고객의 마음을 헤아린다.

고객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고객과 만나는 최전선에서 헤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다는 사람들. 그들의 밝은 표정과 목소리가 살아 있기에 '건설기계 및 엔진/발전기의 종합병원'이라는 헤인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1

희망의 덩크슛을 쏘는 농구 동호회 '에어볼'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들의 플레이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남자들은 매력적이다. 현란한 드리블, 절묘한 리바운드를 위해
오늘도 코트에서 땀 흘리며 연습하는 농구 동호회 '에어볼(Air Ball)' 역시 남자의 매력을 한껏 뽐어내고 있다.
이 불꽃 같은 남자들의 농구 스토리를 들어보자.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는 아속하지만 대신 해가 길어져 저녁 시간이 자유로워졌다. 적당
히 선선한 기온에 해가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저녁 시간이 농구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
다. 농구 동호회 '에어볼'은 매주 목요일이 정기 모임 날이지만 누군가 "퇴근 후 농구
한 판 어때?"하면 멤버들이 모여 자유롭게 연습하고 시합하는 분위기다. 본사 근처 근
린공원과 구룡사 절 앞마당 코트가 '에어볼'의 단골 모임 장소. 때문에 언제나 시간 날
때, 농구가 하고 싶을 때마다 모일 수 있어 그 어느 동호회보다 팀워크가 좋다.

에어볼이 아닌 덩크슛을 쏘다

서산 너머로 해가 기운 금요일 저녁, 새하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8명의 남자가 농구
코트에 들어섰다. 청백전은 오랜만이라 그런지 묘한 긴장의 기운이 감돈다. 그동안 쌓
아온 각자의 실력을 몸으로 부딪치며 알아갈 시간이다.



1 그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찰스 바클리처럼 멋지게 슛을 쏘는 김종엽 과장
의 폼이 수준급이다. 2 점프볼을 하기 직전, 서로 견제하는 박국영 사원과
최규하 대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길거리 농구지만 언제나 게임은 정식 시합 못지않은 분위기다. 두 팀으로 편을 가른
후 진지하게 패어플레이를 약속하며 악수를 나눈다. 휘슬이 울리고 점프볼을 하자 공을
차지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박국영 사원과 최규하 대리. 직급은 다르지만 승부에 있어서
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팀의 에이스 박국영 사원은 현란한 드리블로
다른 동료들을 제쳤고, 김종엽 과장이 빠른 골밑슛을 쏘자 다들 속수무책이다. 강호경
과장의 3점 슛은 석양의 후광을 받아 더 멋지게 바스켓을 흔들었다. 다들 경기에 몰두
해 공을 주고받으며 몸으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 그대로 말이 필요 없는
경기다. 선수들의 빠른 속공과 개인기 덕에 경기는 더 흥미진진해진다.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동호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체력도 더 좋아졌어요. 이젠 웬만
큼 뛰어서는 쉽게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호회 내에 있는 같은 팀 직원과는 사무실
에서도 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최규하 대리는 농구를 하다 보니 친구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졌다고 하며 이제는 테크닉을
더 향상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

빠른 패스와 슛이 이어지다 보니 골이 마구 터진다. 남몰래 연습 많이 한 것 아니냐며
눈을 흘기지만 그래도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김유철 사원의 단독 자유
투도 성공! 본래 골밑슛이 특기라는 김유철 사원은 슛의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다. 객원 멤버였던 지용성 사원은 '생각보다 잘한다'는 기존 멤버들의 칭찬에 일찌감치
예비 선수 자리를 맡았다. 원래 야구 동호회 소속이었던 노우철 사원도 야구보다 농구
를 잘한다는 말에 주저 없이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은 사람의 취향도 바꾸고 동호회의 멤버도 늘려 주는가 보다. 멤버가 부족한 동호
회라면 이런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지금 내겐 림밤에 보이지 않아

'에어볼'은 원래 농구에서 림을 맞히지도 못하고 멀리 빛나던 공이라는 뜻이다. 실력 없
는 사람이나 선수들이 실수로 던지는 에어볼을 왜 동호회 이름으로 정했을까. 비록 테크



닉은 부족하지만 열정과 힘만큼은 최고인 볼이 바로 에어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구 동호회 '에어볼'은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술보다는 열정 가득한 슛을 날리는 모임이 되겠다는 뜻이다.

그들을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농구의 매력은 과연 뭘까. 수비를 제치고 높이 뛰어올라 날린 슛이 성공할 때, 그 희열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농구의 참맛을 모른다고 말하는 '에어볼' 멤버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농구의 매력을 그들은 몸으로 땀으로 보여줬다. 연습 경기도 실전처럼 치열하게, 림을 향해 열심히 슛을 날리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몰입의 힘이 느껴졌다. 몸을 부대끼며 눈빛으로 나누는 교감과 공을 잡은 순간 집중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농구의 매력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본다.

“언젠가는 양재동 최고의 실력을 가진 팀이 되어 양재동 외에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려면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실력을 닦아야겠죠?”

에어볼의 최근 성적은 4승 2패. 주로 자체 청백전을 하거나 연습 코트에서 자유롭게 만난 사람들과 겨루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쉬운 상대를 만나 매번 이기면 좋을 것 같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 고전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런 경기일수록 더 열심히 뛰게 되고, 비록 지더라도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는 하지 않는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승패는 아직 모른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뛰면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힘들지만 그렇게 열심히 땀 후에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면 일주일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란다.

열정과 정신을 닮은 백넘버

“학창 시절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즐겨 봤어요. 그래서 제 백넘버도 주인공 강백호와 같은 10번입니다. <슬램덩크>를 보면서 가상으로 농구 실력을 키우기도 했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만화 <슬램덩크>. 스포츠를 통해 선수들의 의리와 프로 정신, 그리고 농구에 대한 열정을 그리고 있는 이 만화는 학창 시절 큰 인기를 누리며 많은 명대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아직도 강백호의 팬이라는 노우철 사원은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라는 대사를 진리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포워드를 맡고 있는 김종엽 과장의 등번호 34번은 찰스 바클리의 백넘버다. 그는 열심히 하다 보면 찰스 바클리 근처라도 가지 않겠냐며 멋쩍게 웃었다.

“찰스 바클리는 1990년대 NBA의 MVP로 활약한 전설의 승부사예요. 포워드계의 지존이고 인기도 대단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의 멋진 플레이는 아직도 팬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죠. 저도 그의 열혈팬 중 하나고요.”

이렇듯 각자 백넘버에는 롤모델처럼 되고자 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들이 에어볼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건 단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농구에 대한 열정과 집념 때문이다. 승리를 위한 피나는 노력은 비단 스포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농구를 통해 그들의 정신과 열정을 닮아 인생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농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동호회에 입회하게 된 이유도 저마다 다르지만 농구 코트에 있는 순간, 같은 목표를 향해 땀 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 공 하나로 시작되는 우정과 꿈을 향한 열정이 있어 오늘도 에어볼은 골대를 향해 뛰어오른다. 🏀

1 농구동호회 '에어볼'이 하얀 유니폼만큼이나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2 팀의 에이스답게 과감한 돌파력을 선보이는 박국영 사원과 김유철 사원의 수비가 맞붙었다. 3 현란한 드리블이 특기라는 이효상 사원의 플레이. 실력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여유로운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4 시합 전, 페어 플레이를 다짐하며 양팀 선수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5 김종엽 과장의 점프 슛에 '달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아무도 마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들을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농구의 매력은 과연 뭘까. 수비를 제치고 높이 뛰어올라 날린 슛이 성공할 때, 그 희열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농구의 참맛을 모른다고 말하는 '에어볼' 멤버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농구의 매력을 '에어볼' 멤버들은 몸으로 땀으로 보여줬다.



professional

우리는 흔히 ‘프로’ 하면 스포츠 선수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프로’의 참 의미를 발견한다.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들의 모습은 부러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허나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이상 스포츠 선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직장인 역시 프로답게 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추상적인 ‘동경’이 아닌 현실적인 ‘실천’을 통해 프로가 되는 법을 소개한다.

최고를 향한 열망과 추진력을 키워라

먼저 프로다운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를 향한 열망과 추진력’이 남달라야 한다. 예컨대, 아마추어 야구 선수에게 야구는 즐기는 대상일 뿐이기에 이들이 야구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에게 야구는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크고 선명한 비전을 마음에 그릴 필요가 있다.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어항에 넣어 두면 7~8cm밖에 자라지 못한다. 조금 더 큰 수족관에 넣어 두면 15~20cm까

지 자란다. 하지만 큰 강에서는 무려 1m이상 자란다. 사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원대한 꿈을 가져야만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역시 최고를 향한 열망과 추진력이 넘치는 인재를 가장 선호한다. 이러한 인제는 더 나은 가치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IBM 같은 회사가 동일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단력이나 혁신적 사고 등 13개에 이르는 역량을 평가하여 상위 10%와 하위 10% 사람들 간에 최고 4배의 보상 차이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론티어 정신으로 무장하라

최고를 향한 열망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고’ 이상으로 중요한 ‘최초’가 되고자 하는 개척자의 자세도 프로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이다. 일명 ‘프론티어 정신(Frontier Spirit)’ 말이다. 최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남다른 생각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차별화만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침없는 도전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미국에서 성공한 원동력도 거침없는 도전의식이 바탕이 된 프로티어 정신이었다. 그는 미국에 진출했을 때 과거 자신의 매니저가 데뷔 초 매일 방송국 예능 PD 사무실을 방문해 한방 음료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홍보 활동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박진영은 이에 착안해 미국 가수이자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차린 ‘오버브룩’이란 회사를 매일 찾아갔다. 끈질긴 도전의식이 빛을 발휘했고, 결국 11개월 만에 윌 스미스에게 자신이 작곡한 곡을 팔 수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프론티어가 된 것이다.

균형 감각을 절묘히 조화시키자

프로 직장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균형 감각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다. 균형 감각은 우선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전한 직업윤리는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의 일을 업무 시간에 처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업무와 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에서도 빛을 발한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비생산적인 회의, 소모적인 업무 습관, 불필요한 비난과 불평불만으로 자신을 불만덩어리로 주위에 알리지 않는 노력부터 있어야 한다. 건설적인 비판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비난은 프로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을 쟁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진정한 프로들은 일할 때는 일 중독자처럼 무섭게 일에 파묻히지만,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일중독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인정

더 큰 성공을 향해 자신을 경영하라!

이 시대 진정한 프로의 5가지 조건

프로다운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 스스로 프로답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수동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인 것. 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하는 자만이 인생의 후반기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 프로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5가지 자기경영 포인트를 살펴보면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 보자.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먼 미래를 두고 볼 때 반쪽짜리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직장인은 진정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감수성과 다양성 수용 능력을 갖춰라

다양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변화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도 프로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남다른 특징이다. 국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장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언어 습득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세계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다양성과 관련한 직원들의 감수성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례로 세계적인 헬스케어 제조사 존슨 앤 존슨은 ‘다양성 대학’을 설립해, 직원들에게 글로벌 및 이(異)문화 이슈에 대한 감수성 훈련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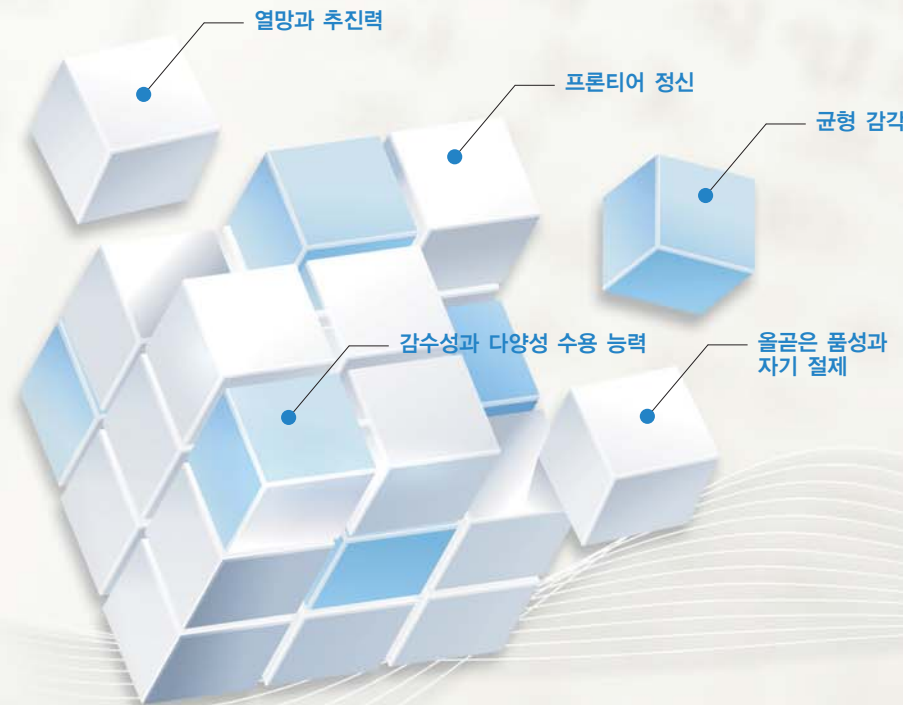
올곧은 품성과 자기 절제도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프로 스포츠맨이 그릇된 행동과 무절제한 사생활로 정상의 자리에서 좌초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심할 경우 다시금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치는

직장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프로 직장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올곧은 품성과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자기 절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피터 드러커는 “정직한 품성과 도덕성에 기반한 자기 절제 능력을 갖춘 경영자만이 오래도록 존경받는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가 투명하고 정직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정치(政治)’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정도(正道)’를 걷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갖추는 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프로다운 인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프로다운 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답게 일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조직 전체가 함께 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조직이 프로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로 거듭날 때 진정한 프로다움이 완성될 수 있다. 구성원 스스로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조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프로 직장인의 자기 경영 포인트 5	
● 최고를 향한 열망과 추진력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1등이 되겠다는 의지와 신념 불굴의 의지와 용기의 발로
● 프론티어 정신의 무장	최고 이상으로 중요한 최초가 되고자 하는 개척자의 자세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
● 균형 감각의 절묘한 조화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균형감각
● 감수성과 다양성 수용 능력	다양성을 수용하고, 변화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읽는 감수성
● 올곧은 품성과 자기 절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세 주위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자기 절제 능력

In Haein | Excavator Innovation / WTL 캠프

In
haein



프로 직장인이려면 누구나 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꿈꾼다. 아니 꿈꿔야만 한다. 여기 해인에도 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들이 있다. 장비사업본부 영업맨들이 모인 스터디 그룹인 굴삭기 스터디 모임과 휠로더 스터디 모임이 그 주인공. 해인의 대표 제품군이기도 한 굴삭기와 휠로더에 대한 살아 있는 정보를 교환하며 나날이 전문성을 쌓아 가는 그들의 공부 방법이 궁금하다.

1 스터디 그룹의 결성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Excavator Innovation’은 지난 3월, 캐터필라 굴삭기의 가치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자는 취지에서, ‘WTL(Wheel Type Loader) 캠프’는 지난 해 7월, 휠로더 부문 각 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프로들의 집합체가 되어 보자는 뜻에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2 모임은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

스터디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살아 숨 쉬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데이터만 들여다보며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팀을 나눠 경쟁사 장비와 구성품을 비교하는 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정기모임을 기본으로하며 해인KN을 통한 정보 공유는 물론,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지역별 친목모임을 통해 인간적인 끈끈함도 함께 다지고 있다.

3 스터디 그룹 결성 전과 후의 변화가 있다면?

정보를 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고객 응대력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쟁사나 타 부서의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 습득이 늦어 고객에게 자신 있게 제품을 소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모임 결성 후 함께 공유한 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장비를 구매했을 때의 이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고무적인 사실이다. 스터디를 할수록 업무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기쁨이다.

4 앞으로 보강하고 싶은 부분과 목표는?

멤버들 모두 공부는 할수록 욕심이 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또 다른 호기심과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 장비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장비가 작동하는 곳의 토양과 토질까지 분석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경쟁사 공장을 견학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회사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악수부터 명함 건네기까지

성공을 부르는 첫인상 업그레이드 비책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 형성되는 첫인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 만남에서 각인된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가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첫인상의 호감 여부가 성공을 좌우하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첫 만남에서 이뤄지는 악수와 명함 건네는 에티켓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가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악수와 명함을 건네는 일도 그 중 하나다.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인 나머지 별다른 고민없이 지나치기 일쑤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법. 올바른 악수법과 명함 건네는 방법을 통해 성공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보자.

예의는 기본,.. 마음을 담아 건네는 인사..

악수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됐다. 통상 무기를 쥐는 오른손을 내밀어 적의가 없음을 증명한 것. 그렇게 시작된 악수는 오늘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의 의미로 변형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악수의 기본은 바로 오른손을 내미는 것. 이 외에도 악수의 기본 동작과 예절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먼저 악수를 청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악수는 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청한다. 단, 남녀 간에는 상하 구별이 우선이다. 즉 남자가 상사일 경우, 여자에게 먼저 청한다. 이때 상대방의 손을 너무 세게 잡거나 약하게 잡아서는 안 되며, 손끝만 내미는 것도 실례가 된다. 손은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다. 손에 땀이 나거나, 더러운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악수를 피하는 편이 낫다. 손을 잡은 채 말을 오래하는 것 역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허리는 굽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허리를 지나치게 숙이면 오히려 우매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 상대방이 뒷사람일 경우에는 뻗뻗하게 서기 보다는 고개를 약간 숙이는 정도로 예를 표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탄창을 피울 경우, 상대방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선 처리에도 각별히 주의한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도구..

악수와 더불어 첫 만남에서 나누는 인사 중 하나인 명함. 명함은 ‘제2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를 보여 주는 창(窓)인 동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명함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지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함을 사용한 사람은 최초의 유학생인 유길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함은 그와 비슷한 시기인 1883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사절단 자격으로 서양 문물을 시찰할 당시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국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명함은 악수와 반대로 아랫사람이 뒷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때 양손으로 건네는 것이 원칙이며, 명함을 받은 사람은 명함을 잘 보고 난 후 본인의 명함을 건네도록 한다. 만약 동시에 주고받는 경우라면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아야 한다. 명함을 건네며 ‘반갑다’는 인사 한마디는 기본이다. 또한 간단하게 자신의 직책과 이름을 말하고,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는 방문자가 먼저 건네는 것도 잊지 말 것.

명함을 받고 나서의 행동도 중요하다. 받자마자 주머니나 명함첩 등에 넣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만남이 끝날 때까지 눈에 보이게 두어야 하며, 대화 도중에 명함을 자주 들여다본다거나 무의식적으로 받은 명함을 만지작거리거나 낙서하는 것 역시 큰 실례가 된다. 만난 날짜와 용건, 인상착의 등은 만남이 끝난 후 뒷면에 기록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 명함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함 자체의 디자인이나 악수에 관한 단편적인 스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악수와 명함을 건네는 행동이 단순히 기계적인 인사가 아닌, 반가운 마음과 친근한 정을 담아 따뜻함을 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런 마음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좋은 첫인상으로 성공하고 싶은가? 보다 나은 첫인상을 만드는 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기본 방법을 숙지하고, 진심어린 인사를 건넨다면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

손쉽게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가이드

환경을 생각한 오늘이 내일의 생활을 바꾼다

누구나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원한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듯,

열혈 청년도, 삭막한 도시민들도

작게나마 친환경 삶을 실천한다면

마음의 여유와 풍족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노하우를 소개한다.

전 세계인들이 '두 시간 동안 전기를 끄고 촛불을 켜는 날' 이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작은 촛불들이 피어오른다. '캔들 나이트'라는 이 캠페인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6월 21일)와 밤이 가장 긴 동지(12월 22일)에 실시된다. 캠페인을 추진하는 여성환경연대는 단지 전깃불만 끌 것이 아니라 문명의 플러그를 잠시 뽑아 두고 잠시나마 삶의 속도를 늦출 것을 권하고 있다. '캔들 나이트'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 카페와 숍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차두레에서.. 녹색 결혼까지..

이렇듯 에너지를 아끼고 지구를 지키려는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나 외국의 독특한 사례 등으로 첫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나름의 방법을 실천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도시 생태공동체 성미산 마을에서는 여섯 가구가 차 한 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두레'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연회비 20만 원을 내고 9인승 승합차 한 대를 각자 필요할 때만 가져가 탄다. 기름 값은 이용 거리만큼만 각자 내고 차를 쓴 후에는 다음 가족을 위해 간단하게 청소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둔다.

한편, 소비하는 결혼이 아닌 지구를 지키는 결혼을 실천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다. '녹색결혼'을 지향하는 이들은 신혼여행은 유기 농산물



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가 함께 땀 흘리며 앞날을 계획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살림도 꼭 필요한 것만 장만한다. 냉장고는 양문형 대신 작은 절전형으로,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를 선택하는 식이다. 이는 단지 가전제품을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부의 생활까지도 변화시킨다. 가까운 거리에서 유통되는 먹을거리를 조금씩만 사서 요리하고, 텔레비전 보며 뉘 놓고 있을 시간을 아껴 대화를 나누거나 살림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방법들..

위의 경우처럼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친환경적 삶을 실천할 방법은 많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태양부터 차단한다. 창밖에 차양을 설치하고 실내에 얇은 커튼을 치면 햇빛으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 에어컨 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에어컨보다 선풍기나 부채가 환경에는 더 좋다. 땀이 나거나 손을 씻고 난 후에도 무심코 종이 타월을 뽑아 쓰는 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도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구나 가전제품을 바꿀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빨래나 다림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의 좋은 예. 청소기나 에어컨은 필터를 자주 청소해 불

필요한 전력 소비를 막고 조명의 커버나 반사판도 깨끗하게 닦아 밝기를 유지하도록 하자.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환경 캠페인을 벌이는 기업이 많아졌다. 바람 잘 통하는 소재의 옷을 입고, 점심시간에는 모든 전원을 끄고 컴퓨터도 잠시 쉬게 하면 사무실의 열기도 한층 가라앉을 것이다. 또, 한 번 쓰면 버리고 마는 종이컵 대신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면 매일 수십 톤의 종이컵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어 보람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면 생활 패턴이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제품보다는 손수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당장은 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조금이나마 맑게 하고 삶의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촛불 한 개의 작은 파동이지만, 이것이 모이고 모여 퍼지면서 '어둠의 물결'이 만들어졌듯,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꾸려 나가는 것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무심코 생활하던 습관을 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몸을 움직여 실천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서 말이다. ☘

참고 : 여성환경연대 〈현대인을 위한 대안생활 가이드북〉, 한살림 〈살림〉, 국토해양부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50가지 방법〉

친환경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 **한살림** www.hansalim.or.kr
- **여성환경연대** www.ecofem.or.kr
-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 www.greenlife.or.kr
- **캔들 나이트** <http://candle-night.or.kr>
- **함께하는 시민행동 '페어라이프 블로그'**
<http://myfairlife.kr>


Green
TOMORROW

그 섬에 가고 싶다, 인천 섬 여행

세상의 모든 ‘파랑’을 만나는 푸.른.섬.표.

인천은 낯설다. 서울 근교라는 접근성마저 그 이색적인 풍경이 주는 낯선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인천은 가깝지만 먼 여행지와도 같다. 섬은 외롭다. 섬 앞에는 언제나 ‘외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낯선 조합이 만난 인천의 섬은 어떤 곳일까? 그 낯설고도 낯선 여행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름날의 섬은 환희다. 어쩔 이렇게도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는지. 가는 곳마다 푸름이 넘쳐 눈이 호사스럽다. 맑은 취록색이거나 비취색 혹은 옥색으로 빛나고, 기쁨은 어지러운 정도로 어둡고 짙은 청색을 띠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파랑은 죄다 모아 놓은 듯 현란한 파랑색의 집합. 그것이 여름날, 인천의 섬이다. 깨끗한 물에 서해 낙조의 황홀경은 덤이다.

Island 1.

신기루 같은 모래섬 풀등을 만나다 대이작도

인천 옹진반도에 떠 있는 섬이다.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무대로 큰풀안(장골), 작은풀안, 계남해수욕장 등이 있다. 모래가 곱고 바닥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해수욕에 제격이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서 서해임에도 하루 종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섬의 명물은 풀등이다. 마을 사람들이 ‘풀치’, ‘고래등’이라고도 하는 풀등은 매일 두 차례 바다에서 신기루처럼 솟아오르는 모래섬이다. 바다 속에 숨어 있던 모래언덕이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 것인데, 물이 완전히 빠지는 사리 때면 길이 7km, 33만여 평의 광활한 모래벌판이 바다 가운데 펼쳐진다. 한 번 드러나면 5~6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모래 위엔 고운 물결무늬가 남는다. 운이 좋으면 모래섬을 하얗게 뒤덮은 해무와도 조우할 수 있다. 바람을 따라 다가서고 물러서기를 반복하는 해무. 상상해보라, 사면에서 출렁거리는 바닷물과 모래섬을 하얗게 뒤덮은 해무라니... 참으로 몽환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부아산도 필수 코스다. 해발 159m의 낮은 산이지만 부아산은 대이작도 최고의 바다 전망대. 목조계단과 구름다리를 지나 산 정상에 오르면 자월도와 승봉도, 덕적도 등 옹진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에 담긴다.

1 밀물 때면 바다 가운데서 신기루처럼 솟는 영흥도의 풀등 전경.
2 눈부신 불빛으로 영흥도를 밝혀주는 영흥대교의 야경이 인상적이다.





1 백령도 여행의 중심 두무진 유람선이 출항하는 두무진포구 전경. 2 '작은 두무진'이라 불리는 등대해안에 있는 동굴에서 밖을 바라본 풍경.
3 장경리해수욕장의 낙조, 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4 파도에 쓸리는 소리가 참 좋은 백령도 콩돌해안의 자갈들.



Island 2.

해안절벽이 아름다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국토의 끝 섬'이다. 인천에서는 228km나 떨어져 있지만 북녘 땅 장산곶과는 불과 17km 거리. 관광지라기보다는 해군 전략 요충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지만 군사시설 밖으로 드러난 백령도의 자연미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청정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문진 일대에서는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는 물범까지 만날 수 있다.

백령도 여행의 중심은 두무진이다. 해안을 따라 약 4km에 걸쳐 기암괴석이 펼쳐지는 절경으로, 두무진은 낚시배를 개조한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걸어서도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다.

버스가 하얀 모래밭 위를 쉼쉼 달리는 풍경도 백령도의 자랑. 바로 사곶해변인데, 모래보다 입자가 고운 규사토가 단단하게 쌓여 있어 썰물 때면 차로 이 해변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쾌감을 맞볼 수 있다. 귀가 맑아지는 바다에 서고 싶다면, 콩돌해안을 찾으시라. 파도에 씻긴 오색의 콩자갈(크기가 콩만 한 자갈)이 수km의 해안을 덮고 있어 독특한 곳이다. 가만히 해변에 앉아 있노라면 파도가 밀려오고 또 쓸려 나가면서 콩돌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차르르' 경쾌한 화음을 낸다. 백색, 적갈색, 청회색 등 형형색색의 콩돌을 밟으면 지압 효과도 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엔 '작은 두무진'이라 불리는 등대해안을 찾는 것도 좋을 터. 천연동굴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을 잊게 한다.

Island 3.

배 대신 자동차로 섬의 정취를 즐기다 영흥도

섬이지만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로 물과 연결돼 있어 웅진군에 있는 섬들 중 접근이 가장 수월하다. 시화방조제~대부도~선재도~영흥도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시원하게 달려 닿을 수 있는 것도 영흥도의 매력.

해수욕장은 십리포, 장경리, 용담리 등 3곳에 형성돼 있다. 섬 북쪽 끝에 있는 십리포 해수욕장은 4km의 자갈밭과 1km의 모래밭으로 이루어진 해안이 특이한 곳. 해수욕장 뒤로는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푸른 서어나무 군락지가 조성돼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그 나무의 생김새를 살펴볼 일이다. 뒤틀림이 독특해 또다른 즐거움을 안겨 준다. 갯벌체험과 함께 해수욕, 여기에 서해 낙조의 황홀경까지 감상하고 싶다면 장경리해수욕장이 안성맞춤. 물이 빠지면 바지락과 동죽 등 조개류를 캐 수 있고, 물이 들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장경리해수욕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낙조. 썰물 때 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 풍경이 멋스럽다.

영흥도에 갈 때 경유하게 되는 선재도도 스쳐 지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의 숨은 명소는 목섬과 측도. 두 곳 모두 밀물 때는 섬이지만, 썰물 때면 이른바 '모세의 기적' 같은 바닷길이 열려 물이 된다. 물이 들고 날 무렵 찾는다면 길이 열리고 닫히는 기이한 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



● 여행 정보

대이작도 : 대이작도행 배는 두 곳에서 출발한다. 인천 연안여객선 터미널과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이 그곳. 소요 시간은 각각 1시간 20분, 1시간 40분 정도. 장골마을에 펜션형 민박이 많으며, 풀등행 배는 작은풀안해수욕장에서 운항한다.

백령도 : 인천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4시간 30분 정도 소요. 1일 3회 출항하는데 결항이 잦으니 미리 운행여부를 확인한다. 까나리액젓으로 국물을 내는 냉면과 왕만두 모양의 찐지떡이 별미. 숙소는 백령면사무소(032-899-3511)로 전화하면 알선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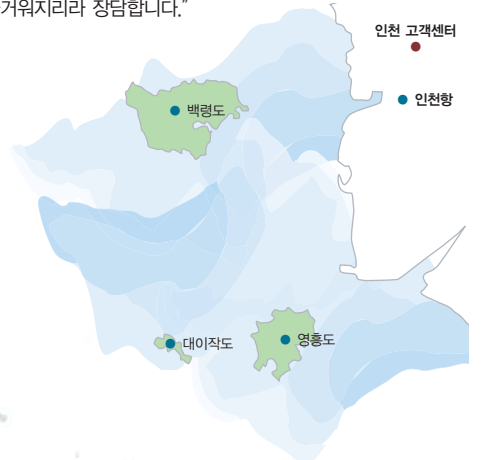
영흥도 :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C로 나와 시화방조제를 향해 달린다. 대부도~선재대교~영흥대교를 거치면 영흥도.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매운탕이 별미. 숙박 시설은 장경리해수욕장 부근에 가장 많은 편.

해인사 추천 여행 tip!

“골라 찾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최준호 센터장(인천 고객센터)

“인천의 섬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어 골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당일치기로 찾겠다면 신도와 시도, 모도에 가보세요. 시승봉도는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기 좋은 곳으로, 넓고 긴 백사장을 거닐며 여유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골뱅이와 조개가 많아 즐거움이 더하죠. 시간도 넉넉하고 인적 드문 곳을 원하신다면 백령도로 떠나 보세요. 우리나라에 두 곳밖에 없는 천연활주로가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섬으로 떠나기 전 인천의 명소 차이나타운에서 자장면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월미공원에 들려 바다를 보며 산책하면 여행이 한층 즐거워지리라 장담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몸에 좋은 한방차로 차(茶)가운 여름 만들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곳, 차가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냉방병이 생기듯 차가운 음식도 자주 먹으면 탈이 난다. 그렇다고 무더위에 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 무기력하고 쉽게 지치는 여름,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으로 바꿔 줄 한방차를 마셔 보는 건 어떨까?

茶

여름의 절정이라 불리는 7월, 끝없이 올라가는 기온에 이제는 태양이 두렵기까지 하다. 직사광선을 그대로 쬌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더위는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에 여름철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내리쬌는 햇볕을 피해 좀 더 시원해질까 궁리하며 차가운 얼음과 시원한 음료만 자꾸 찾게 되는 여름. 하지만 우리 몸은 겉이 뜨거워지면 속은 오히려 차가워지는 성질이 있어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뜨거운 여름철일수록 모든 양기가 위로 떠서 비위가 차고 허해지기 때문에 기운을 돋워 무더위를 이겨 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더울수록 뜨거운 음식을 먹어 쥐야 건강하다는 말씀.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해도 손은 당장 시원한 것을 찾게 된다는 독자들을 위해 건강도 보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한방차를 소개한다.

입맛 돌아오는 비파임차.. 열 내리는 산수유차..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입맛이 없어지고 체력도 떨어진다. 잃어버린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비파임차가 특효. 비파 잎은 한약 재료로도 쓰이는데 그 약효가 다양하다. 특히 여름철 더위 해소와 피로 회복, 식욕 부진, 이뇨에 효과적이다. 폐와 위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도 좋다. 몸의 열 때문에 생기는 구취와 변비에 효과적인 비파는 천식과 기침, 기관지염, 당뇨에도 널리 쓰인다. 비파임차는 그늘에서 잘 말린 비파 잎을 끓는 물에 넣어 약 2분 정도 우려내면 맛있게 마실 수 있다.

체질이 약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신경쇠약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산수유가 효과적이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몸의 열을 내려 준다. 또한, 신맛이 있어 입맛을 돌아오게 하며 두통, 눈 침침함, 요통,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세 등에도 효과적이다.

산수유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오미자가 있다. 오미자의 신맛 또한 잃어버린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땀샘을 조절하여 더위를 식혀 준다. 또 오미자에는 뇌파를 자극하는 성분과 비타민 A, C

가 함유돼 있어 여름철 피로 회복에도 좋다. 오미자차는 잘 씻은 오미자를 찬물에 1시간 정도 우려 마시면 되고, 산수유차는 산수유를 물과 함께 끓인 뒤 식혀 얼음을 띄우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에 좋은.. 대추차..

여름 더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낮 동안 지표면을 달구던 태양의 기온이 밤중까지 남아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는 열대야 현상 때문이다. 열대야가 지속되면 밤잠을 편히 이루기 어렵고 다음날까지 피곤이 쌓여 학업이나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한방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열대야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가 효과 만점이다. 대추차는 속을 편하게 하면서 비장의 기운을 돋우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잠자리를 편하게 한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을 겪는 사람들이 마시면 좋다. 대추차에 띄워 먹는 잣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빈혈이 있거나 허약한 체질에 좋은 식품이다. 식욕을 증진시키고, 두뇌 활동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대추차는 말린 대추를 물에 불려 약한 불에 볶다가 물을 넣고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끓인 뒤 잣이나 꿀을 타서 먹으면 더 맛있다.

잘 챙겨 마신 한방차 열 보약 안 부럽다. 나에게 맞는 한방차로 시원하게 여름 더위를 날려 버리자. 기력이 허해지는 여름도 조금만 신경 쓰면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

여름철 건강에 좋은 한방차

- ☺ **원기회복에 생맥산차** 피로 회복, 갈증 해소, 땀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 이를 그대로, 맥을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인삼, 맥문동, 오미자를 가루로 만든 뒤 1:2:1의 비율로 물에 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마신다.
- ☺ **기력 보충에 구기자차** 몸의 저항력을 높여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한다. 약 600ml의 물에 구기자 열매 3~5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달인다.
- ☺ **시력 건강에 결명자차** 여름철 유행하는 눈병을 결명자차로 미리 예방하자. 단,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배앓이를 하거나 속이 찼 때는 피한다. 살짝 볶은 결명자를 물에 넣고 서서히 달여 마시면 된다.

01 파워시스템사업본부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참여

태양광 주택 및 소형풍력 수주



(주)헤인 파워시스템사업본부 에너지사업팀은 올해 초,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태양광주택 55가구, 소형풍력 21가구를 수주하고 금년 6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평택, 성남, 인천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전남 지역 약 45가구의 보급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 사업은 정부가 개인주택 100만 가구에 태양광, 소형풍력, 지열, 태양열 등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총 설비 예산의 50%를 무상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헤인은 태양광 주택과 주택용 소형풍력발전 설비 보급 부문에 참여하였다.

(주)헤인에서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태양광주택 3kWp 및 소형풍력 발전설비 2.5kWp 규격의 상품에 50Wp를 추가해 주고, 'Green-home 50Wp Plus Up sale'이라는 판촉 행사를 도입해 양질의 시스템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헤인이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고효율 태양전지모듈과 안정성이 뛰어난 인버터, 건물과 잘 어울리는 특화된 설계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했다.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역시 안정된 발전기와 아름다운 외관으로 고객들의 상담과 주문이 폭주했다. (주)헤인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입한 이래, 태양광발전소 준공과 함께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02 모터 그레이더 장갑 벌크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

(주)헤인 고객만족본부에서는 캐터필라 모터그레이더용 장갑을 벌크 구매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부품번호 5D9558, 5D9559, 7D1158의 DH-2 장갑 중 동일한 부품 번호의 장갑을 한번에 10개 이상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문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헤인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모터 그레이더 장비 고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문의 전국 지역 고객센터 및 본사 부품 마케팅팀 02-3498-4653



03 KRESS사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 및 슬래그 포트 캐리어 공급

(주)헤인 산업장비사업본부가 지난 3월 KRESS사와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 대한제강에 40톤급 슬래그 포트 캐리어(Slag Pot Carrier)를 공급했다. 세계적인 기업인 KRESS사는 캐터필라 스크래이퍼 613G를 이용해 슬래그 처리용 장비를 제작, 공급하고 있다. 슬래그 포트 캐리어는 90도로 꺾이는 조향 시스템과 낮은 U자형 플랫폼 설계로 좁은 작업장에서도 슬래그 운반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생산성을 높여준다. 대한제강 관계자는 "KRESS의 세계적인 명성과 (주)헤인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보고 이 장비를 선택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04 고객 맞춤형 서비스 수리 내역 보증서 제공

(주)헤인 고객만족본부는 장비 수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도 증대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고객에게 객관적인 수리 내역 자료인 서비스리포트(Service Report Package)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리포트는 천안서비스센터에 장비 또는 구성품을 입고시켜 엔진 및 미션, 토크컨버터, 액슬 등 주요 구성품의 오버홀(Overhaul)작업을 할 경우 제공된다. 기술서비스팀 공만수 팀장은 "서비스리포트 제공으로 수리 과정에 대한 서비스 상품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이는 곧 고객 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05 내구성이 강화된 단조 팁 HT8552 출시

지난 4월 출시되어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큰 인기를 얻은 HERO팁의 새 모델이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HT8552는 단조 팁으로 제작돼 조직이 균일하고 치밀하며 체결 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흔들림이 적어 작업 중 탈착이나 체결 유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또한 기존의 팁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HD급으로 제작되어 다른 팁에 비해 더 뛰어난 성능과 긴 수명을 자랑한다. HT8552는 345급(992 및 350L, 245B, 345BL) 장비 전용으로 전국에 공급된다.

● 문의 전국 지역 고객센터 및 본사 부품 마케팅팀 02-3498-4653



06 아프리카 르완다 정부 캐터필라 장비 공급계약 체결

(주)헤인 장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5월 12일, 동양물산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르완다 정부 농업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화 240만 달러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공급 대상 장비는 캐터필라 도저 D8R, 트랙로더 963D, 휠도저 825H, 굴삭기 365CL, 소형로더 928H 등 총 5대다.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현지 딜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캐터필라사의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품 및 서비스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HAEIN NEWS

07 중고장비/부품 전문 매매 사이트 'UE트레이딩센터' 오픈

(주)헤인은 지난 6월 1일, 고객들이 중고장비 및 중고부품 거래 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중고장비/부품 전문 사이트 'UE트레이딩센터'를 오픈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던 중고장비 전시장을 온라인 영역으로 넓혀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주)헤인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장비', '고객만족'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중고장비/부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 주소 www.uetradingcenter.com 또는 (주)헤인 홈페이지(www.haein.com 사업 분야 →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08 극압용 HERO GREASE EP 2 출시

(주)헤인 부품마케팅팀에서는 지난 6월 초, 극압용 그리스를 론칭했다. HERO 그리스(EP 2)는 극압 첨가제를 적용한 다목적 그리스로서 강한 극압 조건에서도 범용 그리스 대비 극압 성능이 뛰어나다. 장기간 보존 시 발생하는 오일의 분리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또한 영하에서 고온까지 어떠한 온도에서도(-20℃~120℃) 뛰어난 윤활 성능 갖추어 중장비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기계 설비, 제철, 광산 설비에 모두 적합하며, 4계절 사용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한편, (주)헤인에서는 론칭 기념 특별 할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 HERO 그리스 론칭 캠페인 : 출시 기념 6, 7월 2달간 10% 할인
- 대량 구매 혜택 : 30말 이상 주문 시(HERO 엔진오일 포함) 5% 할인
- 연간 계약 프로그램 : 최소 5%부터, 다른 아이템과 함께 계약 시 최대 10%까지 할인
- 전국 고객센터 오픈하우스 : 고객센터 오픈하우스 행사 방문 고객에게 5% 할인(일정 : 고객센터 문의)
- 헤인 오일 캠페인 : 5월, 11월 2회에 걸쳐 캠페인 진행 예정

09 (주)헤인, 희귀광물개발회사 KMC(주) 인수

(주)헤인은 지난 6월 30일 희귀광물개발사 KMC(주)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주)헤인은 지분 51%를 인수했으며, 나머지 49% 지분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하여 향후 자원개발사업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MC(주)는 몰리브덴 광산을 보유하고 몰리브덴, 구리, 금 등의 비철금속의 선광 설비를 운영하는 업체로 강철, 주철, 초합금의 경도, 강도, 인장도를 높이고 마모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는 합금 원료로 쓰이는 몰리브덴(MoS2)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자원개발사업의 핵심 원료로 각광 받고 있는 희귀금속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주)헤인은 기존 건설중장비 및 에너지동력 사업과 더불어 희소광물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사업다각화와 함께 새로운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헤인이기에 날마다 변화와 발전을 꿈꿉니다. 아는 것이 힘! 날로 새로워지는 장비와 서비스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해 주세요.

〈헤인인〉에서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칼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인 장비는 물론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애독자 카드에 기재하여 보내 주시면 이 지면을 통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접수된 질문은 편찬진 회의를 통해 선정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Q 캐터필라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캐터필라 부품은 순정품 이외에도 클래식, 리맨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캐터필라 부품은 순정품 이외에도 클래식 부품, 리맨 부품, 구성품 교환제도, 중고부품 등이 있습니다.

클래식 부품은 캐터필라 자체 생산이 아닌 OEM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부품을 뜻합니다. 순정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캐터필라에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하기 때문에 순정품과 동일한 하자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리맨 부품은 사용하던 부품(코어 : Core)을 신품 제작과 동일한 공정 및 사양으로 재가공한 것입니다. 신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품과 동일한 품질과 하자 보증기간을 지원하며, 장비 유희시간, 장비 운용비용, 수리비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어를 각 지점 및 영업소로 가져오셔서 육안검사를 통해 3단계(완전보상, 부분보상, 보상불가)의 보상등급을 받은 후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고장 전에 가져오시면 그만큼 보상률이 높습니다.

구성품 교환제도(PEX)는 장비 가동 중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장비의 유희시간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헤인에서 보관 중인 구성품으로 교환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해당모델: D3C~D11N, 325CL~365BL, 980G, 980C 등)

또한 헤인에서는 장비의 연식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점차 부담된다는 고객들을 위해 **중고 부품(Used)**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터필라 중고부품 협회로부터 공급받은 우수한 품질의 부품으로, 신품 대비 40%~60% 저렴합니다(10년 이상 된 모든 캐터필라 장비에 적용됩니다).

Q (주)헤인에서 보내준 창립 50주년 기념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주)헤인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고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다음과 같은 서비스 지원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 장비필드서비스팀에서는 올해에 한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만을 기준으로 출장 수리 비용을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담당 직원 모두에게 PDA를 지급하여 신속한 응대와 현장 출동으로 장비 유희시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기술서비스팀에서는 수리 전에 고객과 상의하여 작업 부분을 결정하고 외주 가공 시 고객님께서 가공 방법 및 비용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직거래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수리 기간 중 고객의 유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현재 CAT 972H 1대 등 운영 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독자 의견

Letter

〈헤인〉은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보다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기분 좋은 이야기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힘이 되는 한 마디는 물론이고 애정 어린 쓴소리까지도
보다 유익한 〈헤인〉을 만드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 (주)헤인이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저도 캐터필라 진동롤러 장비를 갖고 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맘에 쏙 드는 고마운 장비입니다. 이번에 모터그레이더도 한 대 장만하고 싶네요. 항상 번성하십시오!
경북 상주시 계산동 / 오봉석 님

● 헤인이 국내에 판매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중장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국의 맛집 정보도 소개해 준다면 더욱 재미있고 알찬 사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 / 김성철 님

● 봄호 사보에 실린 골재 업체 기사에 그 용도와 장점이 잘 표현되어 있어 매우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사용 용도와 방법에 관해 실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자 적어 봅니다. 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북 포항시 북구 동해화학공업(주) / 김형근 님

● 첫 페이지부터 산뜻한 느낌이 묻어나는 사보 잘 읽었습니다. 가끔 타사 사보를 받아보면 관심이 잘 안 가는데 헤인 사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쫓 읽었네요. 제 남편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헤인'이라는 기업명처럼 언제나 친근한 사보 기대할게요.
충남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 전은선 님

● 저는 골프장 장비 담당자로 캐터필라 스키드로더 26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이 장비에 옵션 장비를 장착해 제설 작업을 하던 중 유압펌프 호스가 터져 그 부품을 카탈로그에서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안서비스센터에서 지원 받아 잘 해결했지만 사소한 부품일지라도 부품 카탈로그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네요. 아올러 코드 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 박봉룡 님

※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 | | |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장비사업본부/건설임대팀 대리 박광홍, 장비사업본부/해외영업 과장 김진수
고객만족본부/서비스운영팀/장비서비스파트 대리 이중희, 장비사업본부/CCE&Paving팀 사원 김한진
파워시스템사업본부/Marketing 및 Admin 대리 백지연 |
| ●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 고객만족본부/서부지역센터/전주고객센터 대리 김태형, 재무본부/부품운영팀 대리 김정화 |
| ● 입사를 축하합니다 | 고객만족본부/영등포고객센터 사원 김영우, 고객만족본부/영등포고객센터 사원 김학준
고객만족본부/부산고객센터 사원 김진석,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 대리 이진형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기술교육파트 대리 김경민, 재무본부/부품운영팀(광양) 사원 김준영
재무본부/부품운영팀(대구) 사원 이정애, 재무본부/부품운영팀(부산) 사원 손재성
재무본부/부품운영팀(인천) 사원 김홍철, 재무본부/부품운영팀(제천) 사원 안우혁
재무본부/부품운영팀(진주) 사원 김명건, 재무본부/부품운영팀(포항) 사원 강영욱
재무본부/부품운영팀(당진) 사원 최낙휘, 기획조정본부/IT팀 대리 류성국 |

스트레스, 바람과 함께 날려 버리세요

“아, 짜증나!”

오늘도 무심결에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았나요?

술 막히는 더위에 무시무시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금방이라도 가슴이 뻥 터져 버릴 것 같은 당신!

가슴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선물할 때입니다.

짜증난다는 소모적인 말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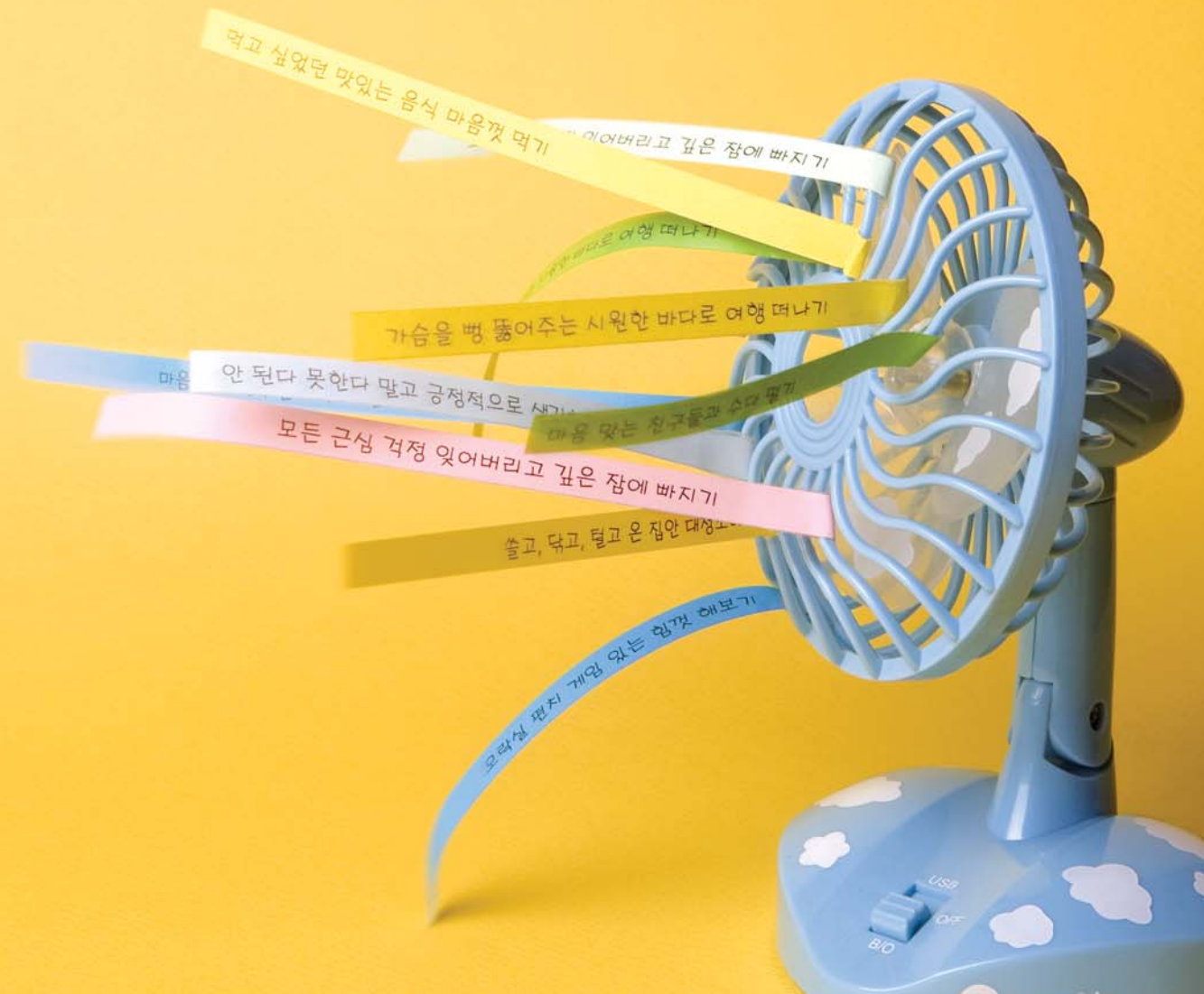
내 안의 크고 작은 마음의 돌덩이들을 찾아

선풍기 바람에 실어 통쾌하게 날려 버리세요.

그리고 ‘다 잘 될 거야!’라고 외쳐 보세요.

가슴을 억누르던 스트레스는 더위와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고개를 갎질이는 기분 좋은 미풍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할 거예요.





volume.267

HAEIN 2010 SUMMER



volume.267

HAEIN 2010 SUMM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전화 |

e-mail |

주소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09. 7. 15 ~ 2011. 7. 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주)헤인 사보편집실

1 3 7 - 1 3 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전화 |

e-mail |

주소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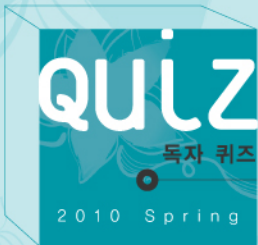
발송유효기간
2009. 7. 15 ~ 2011. 7. 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주)헤인 사보편집실

1 3 7 - 1 3 0



2010년 여름호 사보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독자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힌트를 참고하여
사보를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사보를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주)해인 공급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조율하는 팀은 어디
일까요? 1577-3872가 그 팀의 번호죠.

① 서비스콜센터 ② 엔진서비스팀 ③ 장비사업팀



2. 농구에서는 림을 맞히지도 못하고 멀리 빗나간 공을 OOO이라고 합니다.
해인의 농구 동호회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① 허당볼 ② 에어볼 ③ 에라볼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1. ① 테렉스 세드라피드 수평 스크린
2. ② 서비스운영팀 안민홍 팀장

사보 **해인**은 독자 여러분과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호를 보시고 느낀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사보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 퀴즈 정답과 함께 독자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신규 구독 신청 ☐ 주소 변경

성명 | _____ 전화 | _____

주소(변경된 주소) | _____

Hae.In

구독 신청이나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엽서의 해당란에
체크(V)하시고 아래 사항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주소 변경 시 전 주소도 기입해 주십시오).
전화나 e-mail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Tel : 02-3498-4634
● e-mail : jyyoon@haein.com